

MEG 가격강세 당분간 힘들다!

중국, 미국 · 유럽제품 수입으로 공급과잉 ... 에틸렌 약세전환

세계 MEG(Monoethylene Glycol) 시장은 최근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9월 계약가격은 CFR Asia 톤당 720달러, Spot 가격은 CFR CMP 톤당 695-700달러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산 MEG 1만톤이 유입되면서 내수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구매기업들은 재고합리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구매가격으로 톤당 670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MEG 생산기업들이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동시에 수입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내수가격은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부지역은 Polyester 시장 약세로 MEG 가격이 톤당 7100-715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남부지역은 Maoming Petrochemical이 리액터 트러블로 5일 동안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구매가격이 톤당 7100-72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은 톤당 7000-7100원에서 각각 700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MEG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10월 MEG 원료인 에틸렌(Ethylene) 가격이 CFR NE Asia 톤당 460-490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Polyester 가격이 9월 톤당 8700원으로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곧 성수기가 다가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요저조로 에틸렌 가격이 4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13>